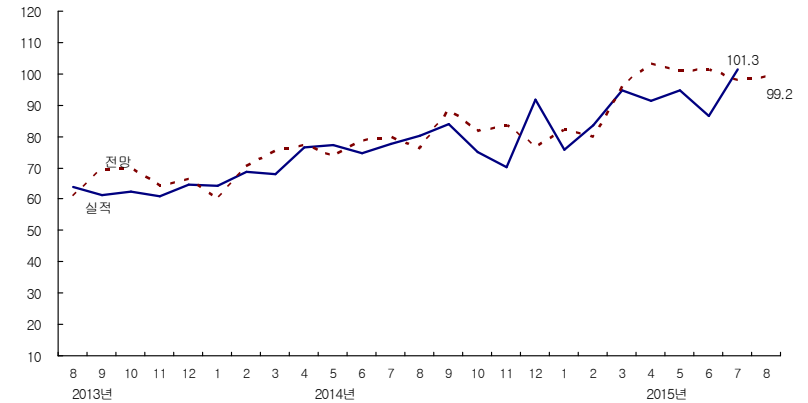


2015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7월 CBSI 14.6p 상승한 101.3 기록
13년 7개월만에 기준선(100) 상회

- 2015년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4.6p 상승한 101.3을 기록함.
 - CBSI가 기준선(100)을 상회한 것은 2002년 12월(102.0) 이후 13년 7개월만에 처음임.
 - CBSI는 지난 3월 이후 주택경기 회복, 신규 공사수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90선을 상회하다가 전월인 6월에 통계적 반락 효과로 86.7을 기록하며 잠시 주춤하였음. 그러나 7월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해 기준선을 상회함.
 - 통상 7월에는 흑서기, 장마로 인해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 영향으로 CBSI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0p 이상 CBSI가 상승한 것은 이례적임.
 - 이러한 상승은 신규 공사지수 중에서 주택공종 지수가 전월비 21.5p 상승해 115.2를 기록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주로 주택경기의 호조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흑서기에 접어든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의 호조세로 인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함. 다만, 규모별로 볼 때 2002년 당시에는 대형 114.3, 중견 97.7, 중소 92.5 등으로 비교적 유사한 수치를 기록한 반면, 현재는 대형 125.0, 중견 94.7, 중소 80.9 등으로 대형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양상이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건설경기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지수가 상승했는데, 특히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음.
 - 대형기업 지수는 주택경기 호조에 힘입어 전월비 25.0p 상승한 125.0을 기록해 2002년 5월의 142.9 이후 13년 2개월내 최고치를 기록했음. 또한, 대형기업 지수는 2001년 CBSI 조사 이래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2.8p 상승하여 94.7을 기록했음. 중견기업 지수는 지난 3월 103.1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여 85.2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15.6p 상승한 80.9를 기록해 전월에 보인 큰 폭의 하락폭(16.7p)을 거의 회복하였음. 지수 또한 80선을 상회해 2015년 초의 50선에 비해 상당 수준 체감경기가 개선됨.

< 규모별·지역별 건설경기 BSI 추이 >

구 분	2014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3.9	74.9	70.4	91.7	75.8	83.5	94.9	91.4	94.6	86.7	101.3	98.2	99.2
구 모 별	대형	108.3	92.3	92.3	100.0	100.0	115.4	108.3	115.4	100.0	125.0	115.4	125.0
	중견	80.0	78.8	70.0	97.0	71.9	90.6	103.1	94.6	84.2	91.9	94.7	94.7
	중소	59.6	50.0	45.1	76.0	51.9	56.0	61.5	67.9	82.0	65.3	80.9	73.9
지 역 별	서울	95.4	85.4	85.8	94.4	86.2	98.0	107.9	102.5	103.0	97.4	115.2	107.6
	지방	67.0	59.6	47.5	87.9	60.7	62.2	75.1	75.6	82.6	71.0	80.4	76.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5년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2.1p 낮은 99.2을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낮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8월에는 건설경기가 7월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아 대부분의 업체가 8월에도 7월과 유사한 체감경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다만, 실적치 보다 전망치가 낮은 것은 2015년 들어 처음으로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추가적으로 더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7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기업이 전월보다 17.8p 상승한 115.2를, 지방 기업도 9.4p 상승한 80.4를 각각 기록함.
 - － 서울기업 지수는 한달만에 다시 기준선 100을 넘어선 115.2를 기록함. 이는, 지난 2002년 5월 120.9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로 매우 양호한 실적임.
 - － 지방기업 지수 또한 한달만에 다시 80선 이상인 80.4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임.

2015년 7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 99.1 기록, 전월비 5.9p 상승

- 2015년 7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5.9p 상승한 99.1을 기록함.
 - － 지난 5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104.8을 기록해 기준선(100.0)을 상회하며 양호했으나, 6월에는 5월보다 11.6p 감소한 93.2로 기준선 이하로 부진했음.
 - － 7월에는 전월보다 5.9p 상승한 99.1을 기록해 기준선(100.0)에 근접함. 여름철 비수기의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수주가 기준선에 근접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수가 전월보다 개선되었는데 특히, 주택과 비주택 공사수주가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됨.
 - － 주택공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21.5p 상승한 115.2로 공종별로 가장 양호했으며, 기준선(100)을 상회해 전월보다 공사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비주택 건축공사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도 전월보다 18.8p 상승한 109.1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임.
 - － 한편, 토목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9.6p 상승한 92.0을 기록함. 비록 지수가 전월보다 개선되었지만, 기준선에 미치지 못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 규모별로는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중견과 중소기업의 신규 공사수주는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대형기업 지수만 전월 보다 33.3p 상승한 133.3으로 대형기업이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됨.
 - － 대형기업의 신규 공사수주는 전월 대비 33.3p 상승한 133.3으로 토목이 125.0, 주택이 158.3, 비주택이 150.0으로 모든 공종에서 전월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남.
 - － 중견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보다 5.3p 하락한 94.7을 기록함. 주택이 108.1로 양호했지만, 비주택이 97.4로 기준선에 다소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토목이 78.9로 부진하였음.

- 중소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13.8p 하락한 63.8을 기록함. 공중별로 비주택이 74.5, 주택과 토목이 각각 72.3, 68.1을 기록함.

< 신규 공사수주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99.1	133.3	94.7	63.8	121.7	65.4
	전망	101.0	141.7	86.8	69.6	122.1	69.7
토목	실적	92.0	125.0	78.9	68.1	103.6	74.7
	전망	92.7	133.3	78.9	60.9	110.0	67.0
주택	실적	115.2	158.3	108.1	72.7	133.9	87.2
	전망	117.2	158.3	100.0	88.6	137.2	87.4
비주택	실적	109.1	150.0	97.4	74.5	130.0	77.9
	전망	107.0	150.0	84.2	82.6	124.0	81.8

주 : 실적은 2015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8월 예측지수임.

- 한편, 2015년 8월 신규 공사수주 전망지수는 101.0을 기록해 7월보다 다소 양호할 것으로 전망함.
- 공중별로는 주택의 전망지수가 117.2를 기록해 가장 양호했고, 다음으로 비주택 건축이 107.0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해 건설기업들이 향후 주택과 비주택 건축수주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토목의 전망지수가 92.7로 8월에도 토목 공사지수는 기준선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공사 기성 지수 90.6 기록해 기준선 하회, 수주잔고 지수는 96.4 기록

- 7월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전월보다 18.8p 하락한 90.6을 기록함.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과 중소기업의 기성 물량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여름철 하절기 장마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공사일 수가 감소해 건설공사 기성 지수가 전월보다 18.8p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대형기업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23.1p 하락한 100으로 기준선을 기록함.
- 중견기업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24.3p 하락한 91.9로 기준선(100)을 하회함.
- 중소기업 지수의 경우 전월보다 7.4p 하락한 78.3으로 기업 규모별로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다음 달 전체 건설공사 기성 지수 전망치는 96.4로 기준선(100) 미만으로 8월에도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7월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보다 6.3p 상승한 96.4를 기록함. 기준선(100) 이하로 수주 잔고 상황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기업의 수주잔고 지수가 133.3로 양호했으나, 중견과 중소기업 지수는 75.7와 76.6을 기록해 부진함.
- 한편, 8월 전체 수주잔고 지수 전망치는 96.9로 7월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함.

< 건설공사 기성 및 수주잔고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건설공사 기성	실적	90.6	100.0	91.9	78.3	100.0	76.8
	전망	96.4	116.7	89.5	80.4	109.9	76.2
수주 잔고	실적	96.4	133.3	75.7	76.6	113.4	71.1
	전망	96.9	133.3	81.6	71.7	111.5	75.2

주 : 실적은 2015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8월 예측지수임.

- 한편, 7월 자금 지수를 살펴보면 공사대금 지수가 103.6으로 기준선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자금 조달 지수는 92.1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 공사대금 지수는 비록 전월보다 5.0p 감소하였으나, 기준선(100) 이상인 103.6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대형과 중견 기업이 각각 102.6으로 기준선을 넘어 양호했음. 그러나, 중소 기업은 89.4로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 기업의 공사대금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보다 12.4p 감소한 92.1을 기록, 기준선 100 이하로 떨어짐.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기업 규모별로 대형기업이 108.3로 양호했으나, 중견과 중소 기업은 각각 94.7, 78.3으로 기준선 이하로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자금 BSI >

구 분			총 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실적	103.6	116.7	102.6	89.4	112.4	90.4
		전망	97.5	116.7	94.7	78.3	105.8	85.2
	자금조달	실적	92.1	108.3	94.7	70.2	102.3	76.9
		전망	88.6	108.3	86.8	67.4	99.3	72.5

주 : 실적은 2015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8월 예측지수임.

끝